

對馬島 調査와 研究 課題

鄭 孝 雲

Jung, Hyoun

東義大學校 日語日文學科 助敎授

1. 머리말

對馬島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며 맑은 날이면 부산에서 관측이 가능한 섬이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는 49.5km에 불과한 데 비해 큐슈(九州) 본토로부터는 132km 떨어져 있다. 이처럼 대마도는 일본보다 한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도에 관한 연구는 전적으로 일본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만큼 한국측에서의 연구가 소홀하였던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는 대마도에 관한 제반 문제를 한국의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목적에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대상 영역은 고고학, 역사, 미술사를 중심 분야로 설정하고 시대 범위는 선사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설정하였다.

사전 조사에서는 주로 대마도 관련 문헌의 소재지 파악과 유적지 및 유물의 위치 파악에 두어졌다. 처음 계획은 1997년 8월 18일 부산을 출발하여 선편으로 히타카츠(比田勝)로 가서 대마도를 조사하고 후쿠오카(福岡)를 거쳐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출발하려 했던 날의 날씨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파고가 높아 출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1차 계획은 부산에서 바로 히타카츠로 갈 수 있어 조사 일정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택하였던 항로였으나, 부정기선이고 25인승의 작은 배였기 때문에 또 다시 태풍으로 인한 조사 계획의 차질을 염려하여 2차 계획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날씨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노선 즉,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가서 후쿠오카에서 대마도로 건너 가는 항로를 택하였다.

동년 9월 11일 부산에서 배를 타고 다음 날 아침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우

* 이 논문은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소학술재단의 1997년도 연구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선 대마도에 관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큐슈대학의 니시타니타다시(西谷正)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복사 수집하였다. 이튿날 일본 국내 항공으로 대마도에 도착하여 미네쵸(峰細) 역사민속박물관의 아비루토모카츠(阿比留伴勝)씨의 안내로 하대마(下對馬)를 조사하고, 14일에는 미네쵸 역사민속박물관에서 주최하는 미네쵸부인회의 상대마(上對馬) 답사에 동행하여 상대마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원래 대마도 조사 일정은 2박 3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태풍으로 인해 일정을 단축하여 그 날 후쿠오카로 돌아와 휴식하고 태풍이 잠잠해지길 기다려 후쿠오카에서 머물다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조사 일정을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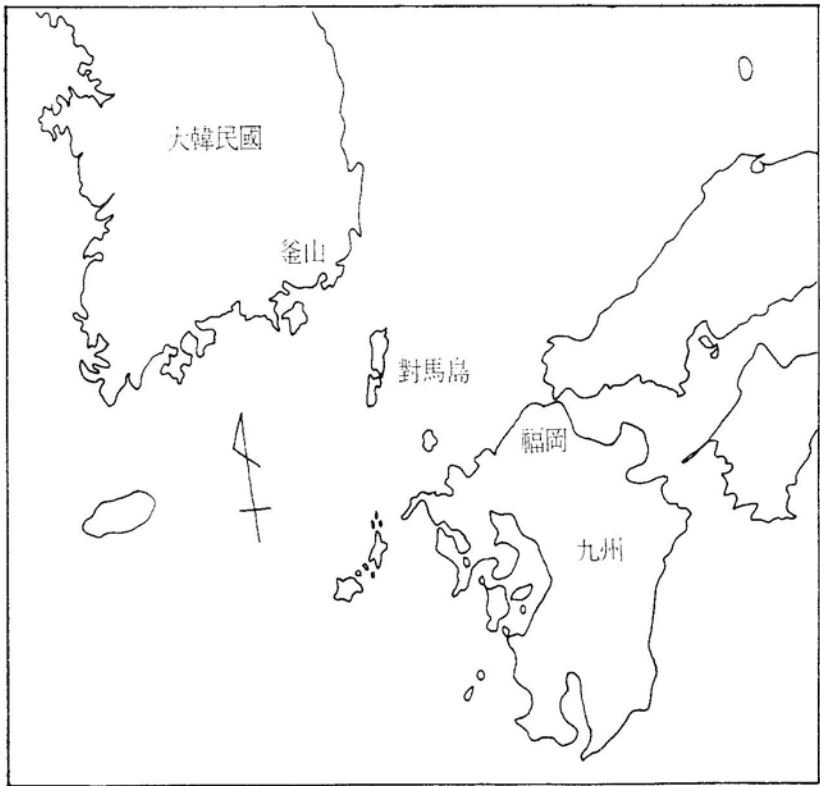
- 9월 11일(목) 釜山(17:00) → 福岡 [船便]
- 9월 12일(금) 西谷教授 및 朝鮮史研究室 所藏資料 調査
- 9월 13일(토) 福岡(14:20發) → 對馬島 [飛行機便]: 下對馬 調査 【峰細 泊】
- 9월 14일(일) 上對馬 調査
對馬島(18:30發) → 福岡: 颱風으로 日程變更
- 9월 15일(월) 颱風의 影響으로 休息
- 9월 16일(화) 福岡(14:15發) → 釜山 [飛行機便]

II. 對馬島의 周邊 環境

1. 自然地理的 環境

대마도의 위도는 북단이 북위 34도 2분이고 남단이 34도 5분이다.¹⁾ 동서의 직선거리는 약18km이며 남북 82km의 좁고 긴 지형으로 총면적은 약710km²이다. 지질은 砂巖과 泥巖의 堆積巖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泥巖은 검푸르고 부서지기 쉬운 암석이지만 풍화하면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붉은 흙으로 된다. 퇴적암계의 혈암이나 점판암층이 많고 화강암이나 현무암, 석영반암 등의 화성암층도 산재해 있다. 이러한 암반층이 섞여 있는 관계로 대마도의 높은 산은 대부분 화성암계로 되어 있는데 비해 낮은 산은 퇴적암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도 좋다. 이는 단단함이 서로 다른 암반이 침식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낸 산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 지도 1을 참조할 것.



지도 1. 對馬島의 위치 지도

지세는 현재에도 87%가 山林으로 되어 있어 경지는 불과 2·3%에 지나지 않으며, 해안선은 거의가 들쭉날쭉하고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다. 기온은 한국보다는 조금 따뜻하고 큐슈보다는 조금 추운 정도이며 기후는 비교적 온화한 편으로 눈이 적다.

2. 歷史·文化的 環境

1) 文化的 環境

현재 대마도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장 오래된 자료로 알려져 있는 것은 카미야카타초(上縣郷)의 쿠하라(久原)에서 발견

된 죠평(繩文) 早期에 속하는 押型文土器이나 조사는 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대마도의 죠평유적은 28개소가 있다. 조사된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쿠하라의 對岸에 위치한 코시타카(越高) 유적으로 죠평 早期末(약 7천 년전)에서 전기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한국과 연관성이 있는 隆起文土器를 비롯하여 석기, 큐슈산의 黒曜石 등이 출토되어 일찍부터 한국 남부와 큐슈를 잇는 문화의 정금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죠평 중기의 유적으로는 토요타마초(豊玉町)의 누카시유적, 카토(加藤) 유적과 미네초(峰町)의 요시다(吉田)패총, 사가(佐賀)패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유적에서는 아타카(阿高)식토기가 주류를 이루나 즐목문토기도 출토²⁾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후기 사가패총이나 카미아카타초의 시타루(志多留)패총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다. 이는 결국 전기에 이어 후기에 이르러서도 대마도가 한국 남부와 큐슈의 문화적 교량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야요이(彌生)시기에 이르면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야요이시대의 주요 유적으로서는 우선 죠평 만기의 야큐(夜臼)식토기와 야요이 초기의 이타츠키(板付) I 식과 II 식의 토기가 출토된 토요타마초, 소(曾)의 스미요시비라(住吉平)와 야큐식토기가 출토된 미네초(峰町)의 미네(三根)포의 요시다유적, 이타츠키 I 식·II 식토기가 출토된 미네의 이테(井手)유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시타루패총의 상층에서도 이타츠키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나 이 시기의 유적부터 두터운 蛤刃磨製石斧와 挾入石斧, 반월형석도 등 초기 도작농경에 동반된 한반도계의 석기가 출토되고 있다.

야요이 전기의 유적으로서는 이즈하라초(嚴原町)의 호만야마(寶嶺山)유적, 미츠시마초(美津島町)의 가야(賀谷)동굴, 카미아카타초의 시타루유적, 카미츠시마초(上對馬町)의 이즈미(泉)유적 등이 있으며, 전기 후반에서 중기 전반의 유적으로서는 이즈하라초의 츠츠(土樽)유적, 미츠시마초의 케치(雞知)와 타마즈케(玉調)유적, 토요타마초의 니이(仁位)·사호(佐保)·미즈자키(水崎)유적, 미네초의 미네(三根)·요시다·시타카(志多賀)유적, 카미아카타초의 니타(仁田)·시타루유적³⁾ 등이 있다.

야요이 중기의 유적으로서는 미츠시마초의 타마즈케·시마야마(島山)의 히라노(平野)포, 토요타마초의 니이노하마(仁位ノ浜), 사호의 아카자키(赤崎)와 카라자키(唐崎), 미네초 미네의 카야노키와 에베스산·코쇼지마(小姓島), 카미아카타초 사고(佐護)의 시라타케(白嶽), 카미츠시마초의 토노쿠비(搭ノ首)유적

2) 永留久恵, 《對馬 歴史觀光》, 杉屋書店, 1994년, 52쪽.

3) 永留久恵, 《古代日本と對馬》, 大和書房, 1985년, 18쪽.

등이 알려져 있다.

후기의 유적으로서는 미네초 미네의 타카마즈단(高松檀)과 사카도(坂堂)유적·키사카(木坂)유적, 미즈시마초의 요시가우라(芦ヶ浦)동굴, 토요타마초 니이의 하로유적, 카미즈시마초의 케이노쿠마(經ノ隈)유적, 미즈시마초의 나카미치단(中道檀)유적, 카미야카타초의 쿠비루유적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유물을 살펴보면 전기의 경우 有柄式磨製石劍과 磨製石鏃이, 중기의 유물로는 細形銅劍이 출토되고 후기의 것으로는 舶載靑銅器와 鐵器, 玉類 그리고 廣形銅矛가 대량 출토되었다. 토기는 전기의 板付Ⅰ·Ⅱ식토기에 이어 중기 이후에는 스구(須玖)식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물의 내용으로 보아 한반도와 관련성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몽시대 이후 야요이시대에도 대마도는 한반도의 문화를 일본 열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歷史的 環境

대마도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문헌 기록은 《三國志》〈魏志倭人傳〉이지만 《後漢書》〈東夷傳〉에 倭의 奴國이 後漢에 조공하였다는 기사가 보이고 있다.

建武 中元 2년에 倭의 奴國이 貢을 奉하여 朝賀하였다. 使人은 스스로 大夫라 칭하였다. 倭國의 南界 끝이다. 光武帝는 印綬를 賜하였다.

中元 2년은 AD. 57년으로 奴國이 後漢과 통교시에 대마도를 해로의 경유지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야요이 중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고고학적 유물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도 대마도는 漢郡隸縣과 韓國과의 통교시 중요한 중계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한편 《三國志》〈魏志倭人傳〉에는 대마도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郡에서 倭에 가려면 海岸을 따라 水行하여 韓國을 거쳐 혹은 南으로 혹은 東으로 그 北岸의 狗邪韓國으로 가기에 7천리. 비로소 一海를 건너기를 千餘里로 對馬國에 이른다. 그 大官을 卑狗라 하고 副官을 卑奴母離라고 한다. 거하는 곳은 絶遠의 섬으로 四方은 四百餘里 정도이고 土地는 산이 험하고 深林이 많으며 道路는 새나 사슴의 길과 같다. 千餘戶이다. 좋은 논은 없고 海産物을 먹고 自活하고 배를 타고 南北으로 가서 쌀 등을 산다.

4) 奴國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의 후쿠오카시 앞의 志賀島에서 '漢倭奴國王'라 쓰여진 金印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후쿠오카시 부근으로 추측하고 있다.

5) 이때의 韓國이란 三韓을 지칭한다.

6) 《後漢書》에는 이후 安帝의 永初 원년(107)에도 倭國王 師升 등이 파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對馬島 考古資料 年表〉

시 기	주요유적명	소재지명	주요사항	형식연년	
B.P.	6680 ± 120	越高遺蹟	隆起文土器 土器, 九州産 黑曜石 龜刀	繩文시대 早期末	
	6400 ± 190	越高尾崎	九州와 한반도 남부 관련 土器群 출토	繩文시대 前期	
	4080 ± 40	누가시遺蹟	阿高式土器 土器, 雜物분토기 출토	繩文시대 中期	
		加藤遺蹟	山梨·海底 두 곳, 阿高式토기	繩文시대 中期	
		吉田貝塚	패총 하층, 阿高式토기 주유	繩文시대 中期	
		佐賀貝塚	阿高式토기, 鐘ヶ崎式토기	繩文시대 中期	
	3230 ± 90	志多留貝塚	패총 하층, 鐘ヶ崎式토기 주유	繩文시대 後期	
	2420 ± 50	住吉貝塚	A지구 패총, 夜白式토기	繩文시대 晩期	
		吉田貝塚	패총 상층, 夜白式토기	繩文시대 晩期	
	2130 ± 50	住吉貝塚	B패총, 板付1式·II式토기	彌生시대 前期	
		井手遺蹟	板付1式·II式토기, 挾入石斧	彌生시대 前期	
		志多留貝塚	패총 상층, 板付1式·II式토기	彌生시대 前期	
B.C.	1세기경	泉遺蹟	土對馬町 泉	彌生시대 前期	
		推ノ浦遺蹟	峰 町 志多留	彌生시대 中期	
		五次郎遺蹟	美津島町 玉淵	彌生시대 中期	
		樽ヶ浜遺蹟	美津島町 難知	彌生시대 中期	
	A.D.	1세기경	佐保浦赤崎	豊玉町 卯麥	彌生시대 中期
			에베스山	峰 町 吉田	彌生시대 中期
			가야노키	峰 町 三根	彌生시대 中期
			平野浦遺蹟	美津島町 島山	彌生시대 中期
			白旗遺蹟	上 縣 町 佐護	彌生시대 中期
		2세기경	小姓島遺蹟	峰 町 佐賀	彌生시대 後期
			唐崎遺蹟	豊玉町 佐保	彌生시대 後期
			하나덴보	美津島町 玉淵	彌生시대 後期
		弘法浦遺蹟	美津島町 島山	彌生시대 後期	
		塔ノ首遺蹟	土對馬町 古里	彌生시대 後期	
		쿠비루遺蹟	上 縣 町 佐護	彌生시대 後期	
		坂幸遺蹟	峰 町 三根	彌生시대 後期	
	高松極遺蹟	峰 町 三根	彌生시대 後期		
	經ノ隈遺蹟	土對馬町 河內	彌生시대 後期		
3세기경	芦ヶ浦遺蹟	美津島町 芦浦	彌生시대 後期		
	木坂遺蹟	峰 町 木坂	彌生시대 後期		
	觀音臺遺蹟	豊玉町 千尋臺	彌生시대 後期		
	하로우遺蹟	豊玉町 仁位	彌生시대 後期		
	中道極遺蹟	美津島町 洲邊	彌生시대 後期		
4세기경	推ノ浦遺蹟	峰 町 志多留	(彌生후기의 유적은 이외에도 많이 있음)	古墳시대 前期	
	小式崎遺蹟	美津島町 竹敷	七號塚, 古式土師器, 漢鏡	古墳시대 前期	
	高坊遺蹟	美津島町 竹敷	石棺墓, 古式土師器(長頸壺)	古墳시대 前期	
	大將軍山	上 縣 町 志多留	石棺群, 古式土師器, 金海式土器, 漢鏡	古墳시대 前期	
	鶴ノ山古墳	美津島町 難知	前方後圓墳?, 토기 불명, 鐵鍬	古墳시대 前期	
5세기경	根曾1塚墳	美津島町 難知	前方後圓墳, 토기 불명, 鐵鍬	古墳시대 中期	
	에베스山	峰 町 吉田	石棺群, 伽羅系硬質土器, 好形이 많음	古墳시대 中期	
	朝日山古墳	土對馬町 浪久須	石棺群, 伽羅系硬質土器, 須惠器 魂瓦	古墳시대 中期	
6세기경	根曾2塚墳	美津島町 難知	前方後圓墳, 土師器, 須惠器, 鐵刀	古墳시대 後期	
	貝崎崎古墳	豊玉町 貝崎	圓墳(扁圓形), 積石, 大形石棺	古墳시대 後期	
	萬人塚古墳	上 縣 町 志多留	圓墳(方墳?), 積石, 大形石棺	古墳시대 後期	
	島山赤崎	美津島町 島山	石棺群, 一基 大形石棺 있음	古墳시대 後期	

서 기	주요유적명	소재지명	주요 사항	형식연대A
A.D. 7세기경	三根3號墳	美津島町 雜知	橫穴式石室, 墳丘 소실	古墳시대 終末期
	矢立山古墳	美津島町 雜知	橫穴式石室, 산중턱에 있음	古墳시대 終末期
667	保床山古墳	巖原町 小茂田	橫穴式石室, 圓墳 2基, 1基는 T자형 석실	古墳시대 終末期
	銅造菩薩像	巖原町 豆板	橫穴式石室, 圓墳 1기, 須惠器 完형이 많음	古墳시대 終末期
745	金田城	美津島町 墨瀬	城山에 남아 있는 古代山城址	天智朝
	新羅鐘	巖原八幡宮	鐘銘에 天寶 1년이라 되어있음(행방불명)	統一新羅시대
8세기	新羅佛	峰町 木坂神社	新羅佛의 조각으로서 알려짐, 重文	統一新羅시대
	新羅佛	美津島町 墨瀬	최소한 作例로서 알려짐, 重文	統一新羅시대
9세기	新羅小佛群	歴史資料館	島内に 散見하는 新羅小佛像을 收藏	統一新羅시대
	島分寺	巖原町 巖原	對馬島分寺 건립, 유적 미확인	平安시대 前期
856	新羅鐘	峰町 木坂神社	鐘銘에 大中古子라고 새겨있음(행방불명)	統一新羅시대
	直觀佛	巖原町 高根	觀音堂 佛像群에 直觀期の 직품이 있음	平安시대 前期
1008	豆板寺梵鐘	巖原町 豆板	鐘銘에 原鐘, 寛弘 5년이라 새겨있음	平安시대 後期
	高麗佛	巖原町 久根濱	本島에 현존하는 最古의 金石文, 重文	高麗시대
12세기	高麗鏡群	峰町 木坂神社	大興寺本尊 銅造如來坐像	高麗시대
	胡州鏡群	峰町 木坂神社	御止懸鏡으로서 제작되어지는 鏡群	高麗시대
1245	和鏡群	峰町 木坂神社	御止懸鏡으로서 제작되어지는 鏡群	宋 代
	觀音木像	巖原町 高根	御止懸鏡으로서 제작되어지는 鏡群	平安시대 末期
	金鼓	巖原町 豆板	觀音堂本尊 hands 觀音 篇文에 「己丑月 高麗府鑄成이라고 새겨있음	平安시대 末期 高麗시대 後期

* 永留久恵, 『對馬と韓土の交流史-古代を主として-』, 『絶海を渡る-七丁櫓地舟による朝鮮海峡横斷の記録-』, 1987년, 『韓友好親善の船에서 인용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마도에는 3세기경에 이미 천여호의 주민이 있었다고 하며 논이 없는 관계로 주민은 어업을 주된 산업으로 삼고, 당시의 韓國 및 倭國과의 교역으로 생계를 이어 갔다고 한다. 이는 고고학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彌生시대 유적이 많고 遺蹟 가운데는 韓半島系와 北九州系의 유물이 동시에 출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후 中國 正史인 《隋書》 <倭國傳>에도 대마도에 관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明年 上이 文林郎裴淸을 倭國에 사신으로 보내었다. 百濟를 건너 가서 竹島에 이르러 南으로 耽羅國을 바라보고 都斯麻國을 지나는데 아득한 大海 가운데에 있었다.

이 인용문은 608년 隋 煬帝가 裴世淸을 倭에 파견할 때의 기사로 여기서는 대마도를 '都斯麻國'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쓰시마'의 일본음을 한자로 借字한 것이다. 또한 《日本書紀》에도 관련자료가 있는데 이를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이 해 對馬島·壹岐島·筑紫國 등에 防人和 烽火를 설치하였다. [天智天皇 3년조]
- ② 等이란 右戎衛副將上桂國·百濟將軍朝散大夫上桂國 郭務隆과 무릇 250인을 말한다. 7월 28일에 對馬에 이르렀다. [天智天皇 4년 9월조의 注]

- ③ 이 달에 倭國의 高安城과 讚吉國 山田郡의 屋嶋城, 對馬國 金田城을 쌓았다. [天智天皇 6년 11월조]
- ④ 11월 甲午朔 癸卯에 對馬國司가 사신을 筑紫大宰府에 보내어 말하기를 “초이틀에 沙門道文·筑紫君薩野馬·韓嶋勝婆娑·布師首磐 4인이 唐을 따라 와서 말하기를 唐國의 使人 郭務棕 등 600인과 送使 沙宅孫登 등 1,400人 總合 2,000人이 船 47척을 타고 함께 比智嶋에 머물렀다. ……” [天智天皇 10년조]
- ⑤ 3월 庚戌朔 丙辰에 對馬國司守 忍海造가 大國에 말하기를 銀이 當國에서 처음 나와 즉시 貢上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大國이 小錦下位를 내렸다. [天武天皇 3년조]

여기서 사료 ①과 ③은 百濟 멸망 후의 倭國과 唐의 긴장상태 속에서 대마도에 防人을 두고 金田城을 쌓았다는 기사로 고대 왜국에 있어서 대마도는 국방상의 요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②와 ④는 唐의 사신이 대마도에 머물렀다는 기사로 倭가 한반도 제국 혹은 중국과의 통교시 거점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료 ⑤는 대마도에서 처음 銀이 나와 倭國에 바쳤다는 기사로 대마도와 왜국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후 한국과 일본의 문헌에 대마도에 관한 기사가 散逸하고 있지만 비교적 자세히 기록된 문헌으로는 12세기 초엽에 만들어진 《對馬國貢銀記》와 1471년 申叔舟에 의해 편찬된 《海東諸國記》 등을 들 수 있다.

對馬島는 本朝의 서쪽 끝에 있으며 大宰府에 속한다. 海안에 고립되고 사면이 絶壁이다. …… 田畝는 전혀 없고 白田을 경작한다. …… 섬 가운데는 珍貨가 充溢하고 白銀·鉛·錫·眞珠·金·漆類를 오랫동안 朝貢하였다. ……《對馬國貢銀記》

對馬島는 郡이 여덟. 戶戶는 모두 沿海의 해변에 있고 모두 82浦에 거한다. 南北은 3일 정도이고 東西는 1일 혹은 반나절 정도이다. 사면은 모두 石山으로 토지는 메마르고 백성은 빈곤하다. 소금과 물고기를 판매하여 생계를 이룬다.《海東諸國記》

이상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대마도의 역사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天武天皇 3년(674)의 貢上: 이래 銀의 산지로서 알려졌지만 中世에는 폐지되었다. 銀産은 근대 초기에 재흥되어 17세기 후반에는 최성기를 맞이하다가 18세기에 들어오면 쇠퇴하게 된다. 律令國家 성립 이래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외교와 국방상의 최전선의 섬으로서 九州 본토나 중앙정부와 정치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天智天皇 2년(663) 白村江의 전투에서 패전당한 후 防인과 烽燧를 배치하고 同6년에는 金田城(美津島町)이 축조

기 《國史大辭典》, 吉川弘文館, 1990년의 對馬國 항에서 인용.

되는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동시에 麗蒙연합군(文永·弘安의 役⁸⁾)의 내습을 비롯하여 몇차례의 외침도 경험하였다.

《延喜式》에는 上縣·下縣의 2郡을 관장하는 下國으로서 遠國으로 기록되어 있다. 國府와 國分寺⁹⁾는 下縣郡(嚴原郡)에 두어졌으며 宮은 海神社(上縣郡御領)에 있다. 그 외에 《延喜式》에 기재된 式內社¹⁰⁾는 29座(전국 3132座 등록)로 대단히 많은데, 이점 또한 한반도와 九州 사이에 위치한 對馬의 특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式內社는 그 후 廢社·合併·改稱 등으로 현재 지명 비정이 곤란한 것도 있지만, 天道信仰의 聖地로 되어 있는 多久頭魂神社·八幡宮神社(嚴原郡)이나 和多都美神社·和多都美御子神社(豊田郡) 등의 名社와 古社가 많다. 또한 嚴原郡의 國分寺(曹洞宗)·西山寺(臨濟宗)·万松院(天台宗)을 비롯하여 島內에는 중세 이래의 한반도 관계의 유물이나 古文書 등을 소장하고 있는 寺院이 많다.

平安시대까지 對馬에서 세력을 떨쳤던 것은 對馬國造¹¹⁾家였고 그 이후 13세기 중엽까지는 在廳官人이었던 阿比留氏였다. 阿比留의 出自는 확실하지 않지만, 9세기 후반에 入島하여 정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3세기 후반부터 이들을 대신하여 宗氏가 대두하였다. 종래 宗氏는 平知盛에서 出自하였으며 對馬와의 관계는 그의 자손 重尙에 의한 阿比留氏討伐(寬元 3년, 1245)에 시작된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大宰府官人이었던 惟宗氏의 한 갈래인 對馬在廳의 惟宗氏가 무사화한 것으로서 1274년(文永 11) 麗蒙연합군의 내습으로 인해 地頭代인 資國(助國)이 對馬에서 전사한 사실로 보아 宗氏가 少貳氏와 함께 對馬支配에 관련되었다는 설이 유력하게 되었다.

그후 宗氏는 남북조의 내란을 틈타 對馬島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수중에 넣게 되고 峯郡말기에는 守護로 승격되어 이후 전국시대 말기까지 守護로 있었다. 그러나 15세기 초까지 宗氏 본가는 少貳氏를 따라 北九州에 있었고 對馬에는 代官을 두었던 듯하다. 所傳에 따르면 1408년(應永 15)에 貞茂가 본거지를 對馬의 根郡(郷)佐賀(峯郡)로 옮겼다고 하는데, 이 무렵부터 宗氏 본가는 對馬로 옮김과 동시에 島内の 지배와 조선과의 무역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듯하다. 따라서 宗氏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도 이 시기부터라고 보아진다.

일본과 高麗 사이에는 정식적인 국교가 없었지만, 1019년(寬仁 3)의 刀伊¹²⁾의 침공이후 九州·壹岐·對馬로부터 무역선이 왕래하게 되었다. 麗蒙연합군의

8) 1274년과 1281년의 2차에 걸친 元의 침략을 말함.

9) 奈良시대 國마다 두어졌던 官寺를 말함.

10) 官社로서 《延喜式》神名帳에 기록되어 있는 神社이다. 대마도에는 29座의 式內社가 있다고 한다.

11) 倭朝廷에 의해 설치된 지방관을 말함.

12) 沿海州 지역에 살고 있었던 女眞族을 가리킴.

내습 이후 이 무역은 단절되었고 忠定王 2년(1350, 觀應 1) 이후에는 대규모의 왜구가 한반도와 중국 연안을 습격하였다. 이 시기의 왜구는 對馬·壹岐·松浦 지방의 어민으로 對馬島가 그 근거지였다.

고려와 조선은 왜구 금압을 위해 室町막부나 九州探題 등과 관계를 맺는 한편, 일본인의 통교무역을 허가하고 투항과 귀순을 인정하는 등의 회유책을 취하였다. 또한 왜구의 본거지를 토벌하기 위해 恭讓王 원년(1389, 康應 1)과 世宗 원년(1419, 應永 26)에 정벌을 단행하였으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회유책이었다. 회유책으로 인해 왜구는 감소하였지만 통교무역을 급증하여 조선정부는 對馬島의 왜구진압과 통교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宗氏를 우대하고 이용하려고 하였다.

당시 對馬島에는 82포구에 8000호의 주민이 살았는데, 朝鮮 九州지역과의 교역과 어업, 제염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浦에는 宗氏의 庶流라든가 옛부터의 토호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海東諸國記》는 기술하고 있다. 土豪로는 조선 뿐만이 아니라 琉球와도 통교하였던 早田氏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三浦(薺浦·釜山浦·鹽浦)에는 왜인(대부분이 對馬島 주민)들이 정주하여(恒居倭人) 무역과 어업에 종사하였다. 宗氏는 조선정부에 협력하면서 世宗 25년(1443, 嘉吉 3)에 癸亥約條(嘉吉約條)를 비롯한 약조로 인해 朝·日관계에 있어서 특권적 지위를 굳히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島內地배를 강화하여 갔다. 이렇게 하여 15세기 후반의 貞國의 시기에는 島內的 지배권을 거의 확립시켰다. 한편 宗氏는 大內氏와의 北九州 항쟁에서 패하여 동지역에 있었던 所領을 잃고 少貳氏와도 결별하여 對馬島만을 발판으로 독자적으로 戰國大名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조선의 통교무역 제한방침과 對馬島 주민의 무역확대 요구 문제가 갈등을 빚어 中宗 5년(1510, 永正 7)에는 三浦의 난이 일어났다. 난 후 통교무역을 엄격하게 제한되자 宗氏는 權益회복에 힘쓰는 한편 島外的 조선 통교무역자의 권익도 집중시켜 16세기 후반에는 조선과의 통교무역권을 거의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1587년(天正 15) 豊臣秀吉의 九州평정에 동반하여 宗氏도 豊臣정권에 복속되어 秀吉의 조선침략(임진왜란·정유재란¹³⁾)시에는 全島가 동원됨으로써 조선무역이 단절되어 섬은 피폐하게 되었다. 1605년(宣祖 38, 慶長 10) 江戸막부와 講和가 성립된 뒤, 宗氏는 조선외교의 실무와 무역의 독점을 허락받게 되고 1609년(光海君 1, 慶長 14)의 己酉條約 이후 對馬島民의 조선무역은 정식으로 재개되었다. 또한 전후 강화를 교섭한 이후 宗氏의 不正(國書改竄 문제 등)이 표면화되어 朝日외교상의 대사건으로 발전한 重臣 柳川調興와의 논

13) 日本에서는 이를 文祿과 慶長の 役이라 지칭하고 있다.

쟁도 1635년(寬英 12) 무렵에는 해결되어 對馬藩主 宗氏의 권력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對馬藩은 근세를 통해 朝H외교의 실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조선부역의 독점을 허가 받은 藩으로 존속하였지만, 在地에서는 在郷給人(郷土)이 領地의 절반 이상을 점하여 被官·下人을 사역시키는 가부장적 경영을 전개하고 他藩의 村役人에 해당하는 직역도 독점하였다. 따라서 농민은 영세한 경영 규모와 과중한 부역 부담으로 인해 자립성이 약하게 되고 중세 이래의 봉건적 지배구조가 강하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對馬島가 변경에 위치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고대로부터의 진귀한 민속신앙이나 행사, 중세 이래의 고문서 등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잘 보존되게 되었던 것이다.

幕末에는 서양열강의 아시아 진출로 인해 對馬島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여 1861년(文久 1)에는 러시아군함 포세토너호의 釜嶽(美智島)점거 사건도 있었다. 明治維新을 거쳐 1869년(明治 2)의 版籍奉還으로 對馬府中은 嚴原 藩은 嚴原 藩으로 되었고, 동년 9월 伊萬里縣에 병합되었다. 익년 5월5일 伊萬里縣이 佐賀縣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동현의 관할로 되었다가 동년 8월 長崎縣에 편성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對馬島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선사시대에는 문화의 교량적 역할을,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는 평화시에는 왜국의 對韓 대외교섭 통로로서, 전시에는 침략의 발판으로, 그리고 때로는 왜구의 본거지로서 이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Ⅲ. 주요 遺蹟·史蹟과 調査文獻

1. 주요 遺蹟

대마도는 현재 長崎縣에 속하며 행정구역은 上·下 2郡 6개의 町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유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표 1. 對馬島의 人口와 面積(1996년 5월 현재)

	세 대 수	총 인 구	총 면 적
上對馬町	1,067	5,670	107.58km ²
上縣町	1,660	4,847	157.67km ²
峰 町	2,003	3,200	72.41km ²
豊玉町	1,648	5,103	75.14km ²
美津島町	2,889	8,839	119.9km ²
嚴原町	6,333	16,307	175.57km ²

1) 표 1과 지도 2를 참조할 것.



지도 2. 對馬島の 行政區域

1) 上對馬町

上對馬町은 대마도의 북동부에 있는 지역으로 1954년에 북부의 舊豊崎町과 동부의 舊琴村을 합쳐 현지명으로 하였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인 관계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에는 조선출병의 전진기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북부와 남부의 유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북부의 고고학 유적으로 塔首遺蹟과 古里古墳이 있으며, 神社로는 神見神社를 비롯하여 島大國魂神社, 能理刀神社 등이 있고 西福寺, 慶龍院, 竹林院 등의 사원이 있다. 西福寺에는 元版大般若經이 있으며 1703년 鰐浦에 도착하기 전 조난¹⁵⁾당한 朝鮮의 譯官使들을 추도하는 碑가 세워져 있다.

남부의 유적으로는 積石塚이 발견¹⁶⁾된 芦見浦유적을 비롯하여 箱式石棺群이 발견된 코후노사에遺蹟, 朝日山古墳 등이 있다. 神社로는 森羅神社를 비롯하여 高崎神社, 胡祿神社, 胡祿御子神社, 那須加美乃金子神社 등이 있고, 그 외 長松寺의 高麗版大般若經이 있다.

15) 그 해 2월 5일의 일로 譯官使 일행 108명과 내마도인 4명 포함 112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16) 1915년경이라고 함.

2) 上縣町

上縣町은 1955년에 서북부의 舊仁田村과 舊佐須內村을 합쳐 만든 행정구역으로 最古의 繩文유적이 있으며 중세 이래 조선 통고의 문호로 사용된 佐須奈港이 있는 곳이다. 먼저 繩文유적으로는 越高遺蹟과 志多留貝塚이 있으며 彌生유적으로는 서북부의 白嶽유적, 쿠비루유적, 서남부의 金嶽遺蹟, 規內遺蹟이 있다. 고분군으로는 大將軍山古墳, 千人塚·萬人塚 등이 있으며, 神社로는 天諸狝神社와 天神多久頭魂神社, 神御魂神社, 國本神社, 伊奈久比神社 등이 있고, 사원으로는 天道山大日寺가 있다. 그 외에 伊奈의 妙光寺 經藏에는 元版大般若經이 수장되어 있으며, 仁田 내에 있는 廢寺의 祠堂에는 北魏佛로 추측되는 작은 銅造佛이 있다.

3) 峰町

峰町은 고대의 三根郷 지역을 현행정구역으로 계승한 곳으로 대마도 彌生문화의 중심지라 할 만큼 彌生시대의 유적이 많은 곳이다. 繩文시대의 유적으로는 佐賀貝塚이 있고 彌生유적으로는 三根川유역의 高松檀遺蹟을 비롯하여 가야노키遺蹟, 坂堂遺蹟, 井手遺蹟 등이 있으며 吉田浦에는 吉田貝塚을 비롯하여 太田原遺蹟, 에베스산遺蹟, 蒙古塚遺蹟, 치고나하나遺蹟 등이 있다. 서해안 쪽에는 避路유적이 있고 동해안에는 小姓島遺蹟, 推浦遺蹟 등이 있다. 神社로는 小牧宿彌神社와 天諸狝神社, 和多都美御子神社, 那須加美乃金了神社 등과 함께 上津八幡宮이 있다. 寺院으로서는 慶昌院, 寶光寺·善光寺, 圓通寺 등이 있다. 圓通寺에는 13세기 고려 중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銅造藥師如來坐像의 본존불과 조선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108cm의 梵鐘이 있다.

4) 豊玉町

豊玉町은 대마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내해지역으로 고대에는 仁位郷으로 불리었다가 근대에 이르러 仁位와 奴加岳으로 나뉘어졌으며 1955년에 합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繩文시대의 것으로는 加藤海底遺蹟이 있으며 繩文시대에서 彌生시대에 걸친 유적으로는 누카시遺蹟과 住吉平貝塚 등이 있다. 彌生시대의 것으로는 箱式石棺이 출토된 貝口浦赤崎와 佐保浦赤崎을 비롯하여 仁位방면의 唐崎遺蹟, 와키노사에遺蹟, 糖浦遺蹟, 하로遺蹟, 東濱遺蹟, 堂內遺蹟群, 中村遺蹟, 加志志遺蹟 등이 있다. 또한 동해안에는 元島遺蹟, 鹽濱遺蹟, 마보로시노야리카와遺蹟, 船카쿠시遺蹟, 觀音鼻遺蹟, 輪島遺蹟 등이 있다. 고분으로는 貝鮒崎古墳, 桑原蒙古塚古墳 등이 있으며 神社로는 和多都美神社와 波良波神社, 嶋

之尊神社, 乙宮神社, 妙見神社, 行相神社 등이 있고 寺院으로는 清玄寺, 妙幢寺, 修林寺, 觀音堂, 觀音寺 등이 있다. 이 가운데 修林寺에는 15세기 조선시대의 銅造如來坐像이, 觀音寺에는 12세기 고려시대의 銅造觀世音菩薩坐像이 안치되어 있고 觀音堂에는 六觀音이 있다. 그리고 石祠인 오타테樣이 있다.

5) 美津島町

美津島町은 1955년에 대마도 중앙부에 있는 淺海灣의 동부 舊船越村과 남부 舊雞知町을 합친 행정구역이다. 彌生시대의 유적으로는 高濱의 히나타遺蹟을 비롯하여 樽濱의 新上手遺蹟, 高坊遺蹟, 弘法浦遺蹟, 平野浦遺蹟, 白連江遺蹟, 하나넨보遺蹟, 카가리松鼻遺蹟, 寺越洞窟遺蹟 등이 있으며, 고분유적으로는 出居塚古墳을 비롯하여 子曾古墳群, 사에노야마古墳, 蒙古塚石棺群, 中道樽遺蹟, 赤崎遺蹟, 玉調遺蹟, 養島遺蹟 등이 있다. 神社로는 住吉神社, 大吉戶神社大祝詞神社, 阿麻氏留神社 등이 있고, 朝鮮式 산성으로 알려진 金田城¹⁷⁾이 있다. 또한 在廳官의 遺蹟이 있고 大吉戶神社¹⁸⁾에는 통일신라 불상으로 알려진 金銅佛이 있다.

6) 嚴原町

嚴原町은 대마도의 제일 남쪽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1956년에 舊嚴原町과 久田村, 佐須村, 豆酸村을 합쳐 지금의 嚴原町을 만들었다. 이 지역은 고대 對馬國府가 설치된 곳이고 藩政시대¹⁹⁾에는 宗家 10萬石의 城下町으로 대마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적이 많다. 현재 繩文시대의 유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彌生시대에서 古墳시대에 걸친 유적으로 瀬戶原遺蹟이 있다. 고분유적으로는 穗床山古墳群을 비롯하여 矢干山古墳과 美女塚 등이 있으며 神社로는 式內社인 和多都美神社²⁰⁾를 비롯하여 銀山神社, 銀山上神社, 高御魂神社, 多久頭魂神社, 小茂田濱神社, 雷命神社 등이 있다. 寺院은 주로 嚴原에 밀집되어 있는데 國分寺인 島分寺와 宗氏의 菩提寺 萬松院을 비롯하여 西山寺, 慶雲寺, 光清寺, 海岸寺, 太平寺, 成相寺, 寶泉寺, 天澤寺, 國昌寺, 松水寺, 修善寺, 長壽院, 禮泉院 등이 있고, 豆酸방면에는 豆酸觀音堂, 金剛院, 永泉寺가, 佐須방면에는 佐須院觀音堂, 福泉寺, 大興寺 등이 있다.

17) 이 城은 《日本書紀》에 의하면 667년(天智 6)에 쌓았다고 한다.

18) 大吉戶神社는 城八幡宮이라고 한다.

19) 江戸시대를 가리킨다.

20) 일명 下津八幡宮 또는 府中八幡宮이라 한다. 전자는 室町시대까지의 명칭이고 후자는 戰國시대 이후의 명칭인데, 1871년에 옛이름인 和多都美로 복귀하였다가 1890년에 嚴原八幡宮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國府의 유적과 1591년 豊臣秀吉이 조선출병시 본營이었던 名護屋에서 조선을 건널 때의 거소 목적으로 축성한 清水山城이 있다. 또한 中村屋形, 池屋形, 金石屋形, 棧原屋形 등의 宗氏 저택 유적이 있고 首塚과 棚塚이라 불리는 宗資國의 묘도 있다. 그 밖에 豆餒방면에는 彌生시대 한반도에서 전래된 고대 쌀인 赤米가 현재도 경작되고 있으며, 佐須방면에서는 지붕을 판석으로 간 石屋根라는 창고가 남아있고, 嚴原港에는 船江이라 불리는 인공으로 만든 入江이 있다. 또한 1976년에 건립된 長崎縣立 對馬歴史民俗資料館과 그 맞은 편에 嚴原町資料館이 있다. 전자에는 일본에서도 희귀한 宗家文庫²¹⁾의 방대한 사료가 수장되어 있고, 후자에는 1948년 東亞考古學會의 학술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宗家の 遺品 등이 수장되어 있다.

2. 관련 歴史・遺蹟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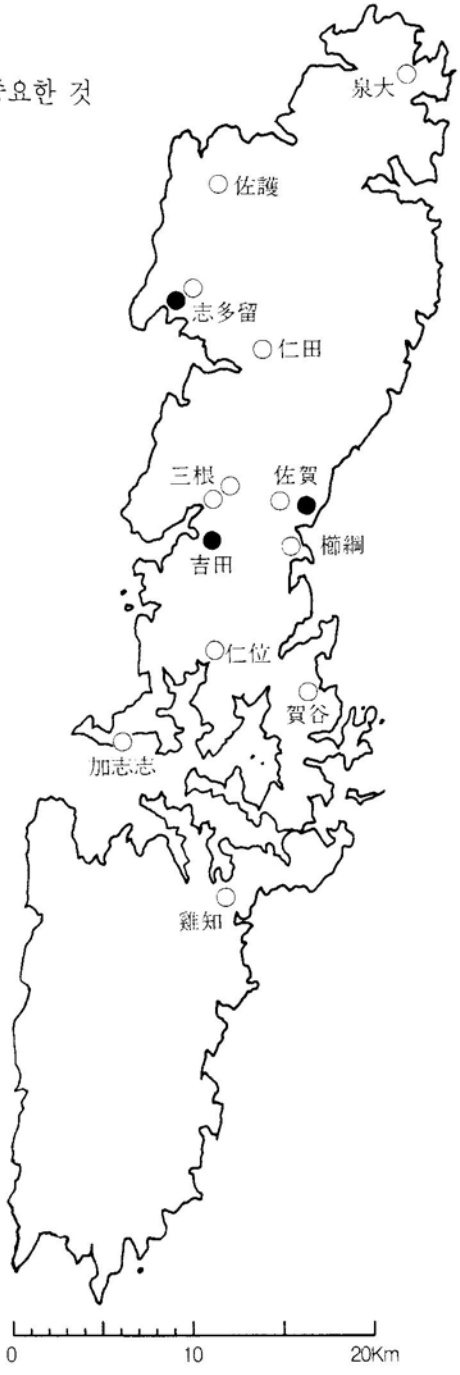
선사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유적지도²²⁾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1) 현재 宗氏文庫는 일본 국내와 한국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를 도표화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2) 역사·문화지도는 永留久恵, 《對馬の歴史探訪》, (株)杉屋, 1982년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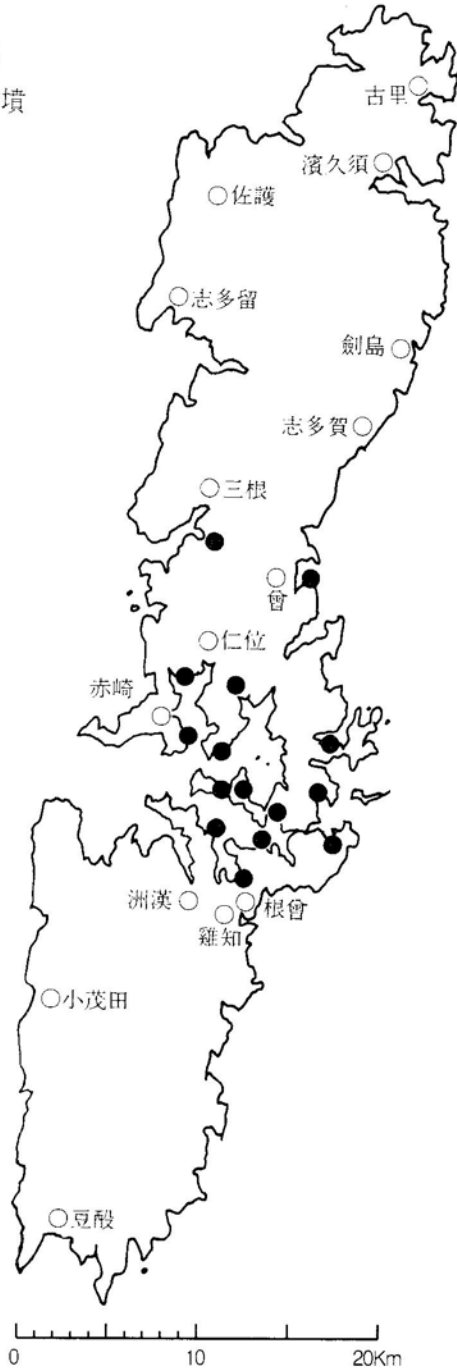
1) 先史時代 遺蹟

- 繩文式
- 彌生式 : 중요한 것



2) 古墳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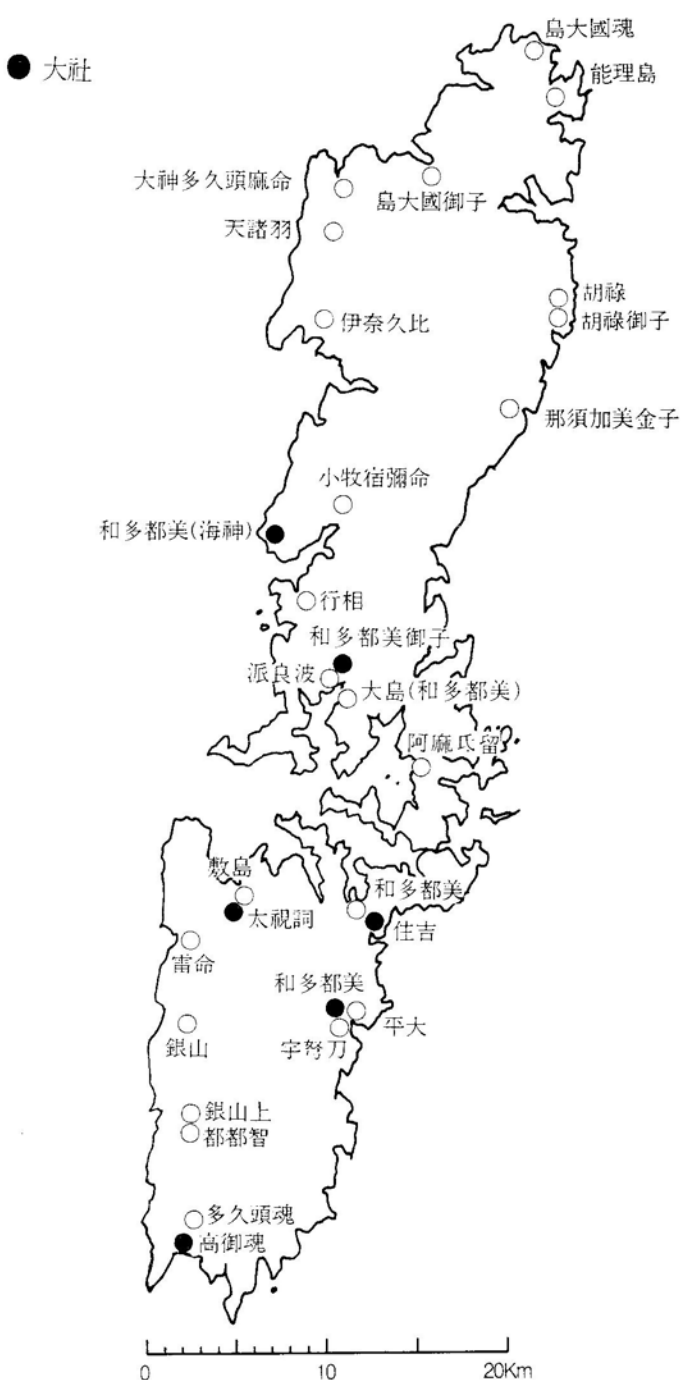
- 중요한 것
- 조사한 古墳



3) 《日本書紀》·《古事記》 및 《萬葉集》의 地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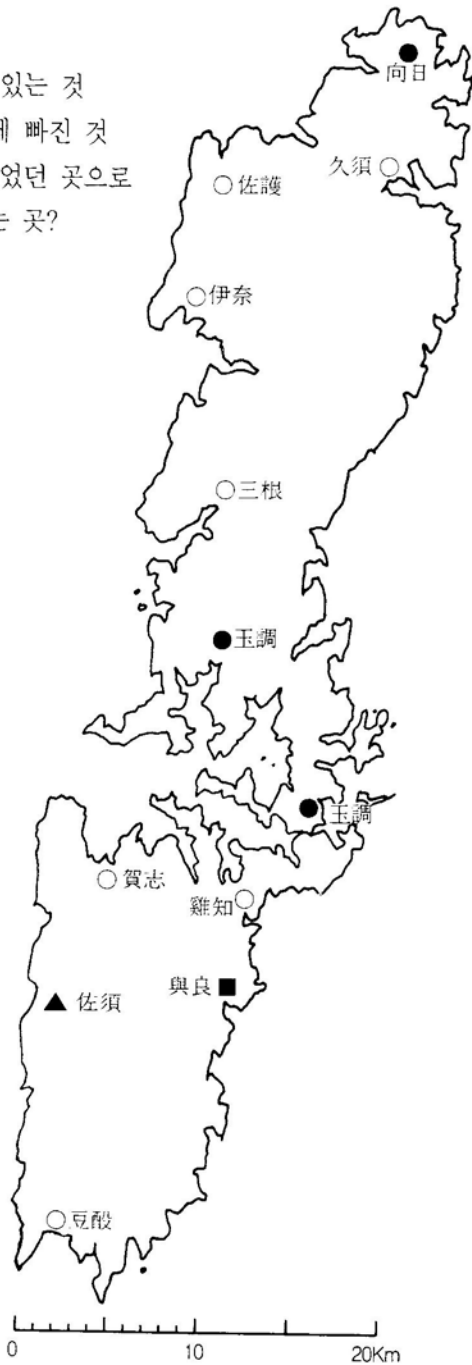


4) 式内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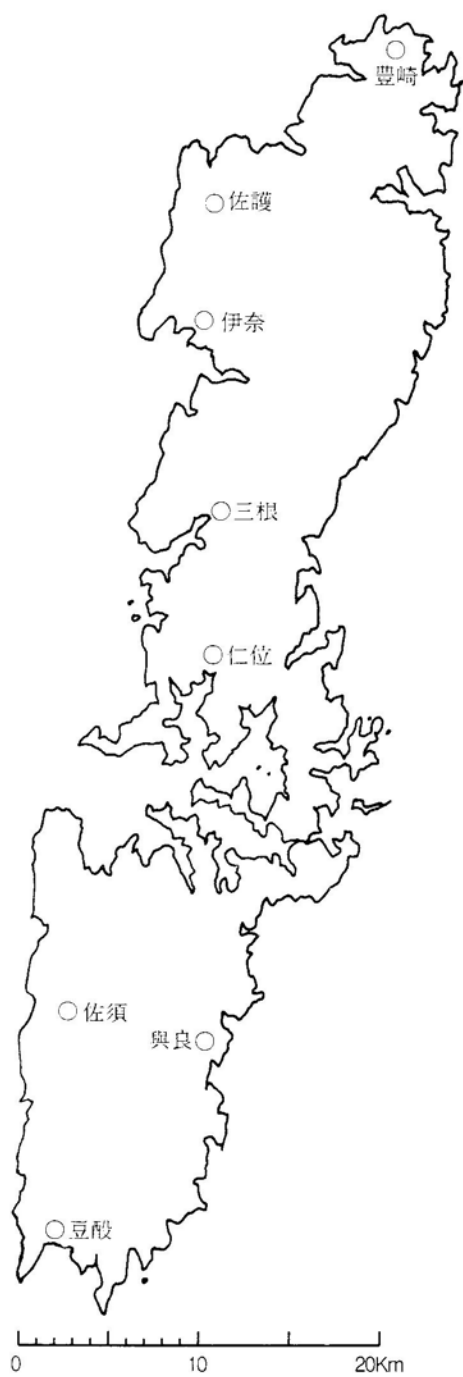


5) 《和名類聚抄》의 郡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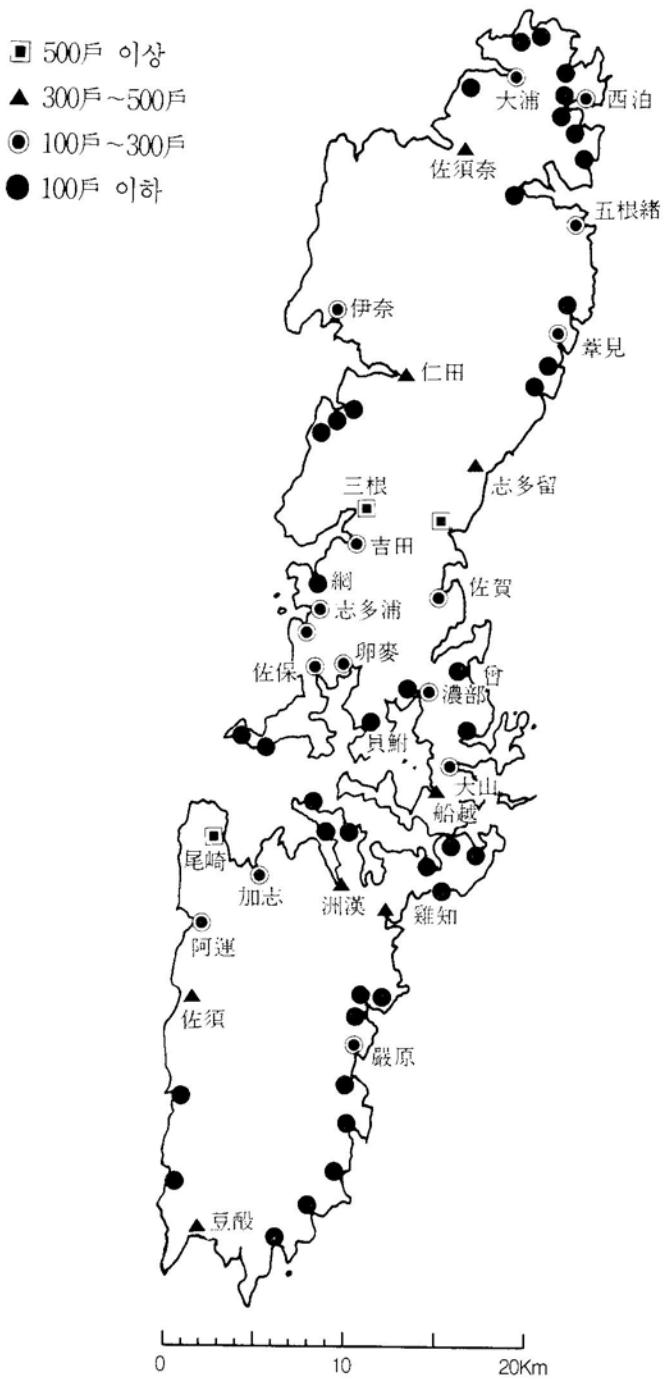
- 定說
- 異說이 있는 것
- 和名抄에 빠진 것
- ▲ 郷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



6) 中世の八郡(近世の八郷)



7) 《海東諸國記》의 浦名



8) 近世 郷村帳의 年貢

- 200石 이상
- 150石 ~ 200石
- 100石 ~ 150石
- 50石 ~ 100石
- 50石 이하



이상의 대마도 유적분포를 통해 볼 때, 앞선 시기 일수록 한국쪽의 지역에 많은 유적이 분포하였으나 시대가 내려올수록 유적의 분포가 일본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 文獻 調査內容

이번 조사에서 九州大學의 西谷正 教授²³⁾가 소장하고 있는 對馬島 관계 도서 목록을 복사하여 왔는데 이를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所藏 著書

- (1) 永留久惠, 《對馬の古蹟》, 對馬郷土研究會, 1970년.(初版 1965년)
- (2) 永留久惠, 《對馬古蹟探訪》, ジャパン・パブリッシー, 1972년.
- (3) 齊藤作人, 《國境線對馬》, 對馬新聞社, 1975년.(初版 1972년)
- (4) 成田吉六, 《對馬・赤米の村》, 葦書房, 1977년.
- (5) 永留久惠, 《對馬の歴史探訪》, (株)杉屋書店, 1982년.
- (6) 田代和生, 《書き替えられた國書》, 中央公論社, 1983년.
- (7) 永留久惠, 《古代日本と對馬》, 大和書房, 1985년.
- (8) 長節子, 《中世日朝關係》, 吉川弘文館, 1987년.
- (9) 永留久惠, 《海神と天神》, 白水社, 1988년.
- (10) 永留久惠, 《對馬古代史論集》, 名著出版, 1991년.
- (11) 正林護, 《ながさき古代紀行》 vol 1 對馬, タウンニュース社, 1995년.
- (12) 永留久惠, 《海人たちの足蹟》, 白水社, 1997년.

2) 所藏 報告書

- (1) 東亞考古學會, 《對馬》, 東亞考古學會, 1953년.
- (2) 對馬遺蹟調査委員會, 《長崎縣 對馬》, 對馬遺蹟調査委員會, 1967년.
- (3) 長崎縣教育委員會, 《對馬》, 長崎縣教育委員會, 1974년.
- (4) 坂田邦洋・永留史彦, 《惠比須山遺蹟發掘調査報告》, 長崎縣峰村教育委員會, 1974년.
- (5) 倭人傳研究會・九州大學考古學研究室, 《對馬・壹岐島の遺蹟一覽》, 倭人傳研究會・九州大學考古學研究室, 1975년.

23) 西谷正교수는 퇴임 후 소장하고 있는 대마도 관련 자료를 본 동아시아문화연구소에 기증할 의향을 가진 분으로 조사시에 많은 협조를 주셨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 (6) 坂田邦洋, 《對馬の遺蹟》, 長崎縣教育委員會, 1975년.
- (7) 坂田邦洋, 《トウトゴ山墳墓群發掘調査報告》, 長崎縣峰村教育委員會, 1975년.
- (8) 阿比留嘉博·坂田邦洋, 《太田原遺蹟發掘調査報告》, 長崎縣峰村教育委員會, 1975년.
- (9) 坂田邦洋, 《對馬の考古學》, 繩文文化研究會, 1976년.
- (10) 長崎縣教育委員會, 《金石城蹟緊急發掘調査報告書》, 長崎縣教育委員會, 1977년.
- (11) 豐玉町教育委員會, 《對馬豐玉町ハロウ遺蹟》, 豐玉町教育委員會, 1980년.
- (12) 美津島町教育委員會, 《洲藻遺蹟》, 美津島町教育委員會, 1980년.
- (13) 長崎縣上縣郡峰町教育委員會, 《峰町東沿岸地域 埋藏文化財發掘調査報告》, 長崎縣上縣郡峰町教育委員會, 1980년.
- (14) 長崎縣上對馬町教育委員會, 《コフノさえ遺蹟》, 長崎縣上對馬町教育委員會, 1984년.
- (15) 豐下町教育委員會, 《イノさえ遺蹟》, 豐玉町教育委員會, 1984년.
- (16) 嚴原町教育委員會, 《金石城》, 嚴原町教育委員會, 1985년.
- (17) 서울신문사, 《日本 對馬·壹岐島 綜合學術調査報告書》, 서울신문사, 1985년.
- (18) 長崎縣峰町教育委員會, 《佐賀貝塚》, 長崎縣峰町教育委員會, 1986년.
- (19) 長崎縣教育委員會, 《中道壇遺蹟》, 長崎縣教育委員會, 1988년.
- (20) 美津島町教育委員會, 《かがり松鼻遺蹟》, 美津島町教育委員會, 1988년.
- (21) 美津島町教育委員會, 《箕島遺蹟》, 美津島町教育委員會, 1993년.
- (22) 嚴原町教育委員會, 《對馬·豆殿寺門櫺西まの遺蹟》, 嚴原町教育委員會, 1992년.
- (23) 長崎縣峰町教育委員會, 《木坂海神神社彌勒堂蹟》, 長崎縣峰町教育委員會, 1993년.
- (24) 嚴原町教育委員會, 《棧原城蹟調査報告書》, 嚴原町教育委員會, 1995년.
- (25) 長崎縣嚴原町教育委員會, 《金石城》, 長崎縣嚴原町教育委員會, 1995년.

3) 所藏 雜誌 및 圖錄

- (1) 對馬郷土研究會, 《對馬風土記》 創刊號, 6호, 8호, 9호, 11호~33호.
- (2) 對馬の自然と文化を守る會, 《對馬の自然と文化》 第1集.
- (3) 長崎縣立教對馬歷史民俗資料館, 《對馬 宗家資料展》, 開館5周年記念.

- (4) 長崎縣立教對馬歴史民俗資料館, 《對馬くらしの資料展》, 開館10周年記念
 (5) 田中節孝, 《江戸時代の日朝交流の要 以郵庵》, 鶴翼山長西山禪寺.

4) 기타 신문스크랩 다수.

· 九州大學 朝鮮史研究室 對馬島관계 도서소장 목록

- (1) 岡村繁, 《對馬藩現存漢籍分類目錄》
 (2) 宗氏關連 文獻 一部

IV. 맺음말

한국과 일본사이에 위치하면서 선사시대에는 문화 전파의 교량적 역할,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는 대외교섭의 중계지 혹은 침략의 발판이나 전진기지로 이용되기도 한 대마도의 사전조사를 통해 향후 동아시아문물연구소에서 기획하고 있는 대마도의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방향을 제시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기로 한다.

첫째, 한국측의 입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범주는 고고학 유적 그리고 역사시대의 사료와 자료 및 유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역별이나 권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는 방법과 시대별 유적·유물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상정될 수 있으나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상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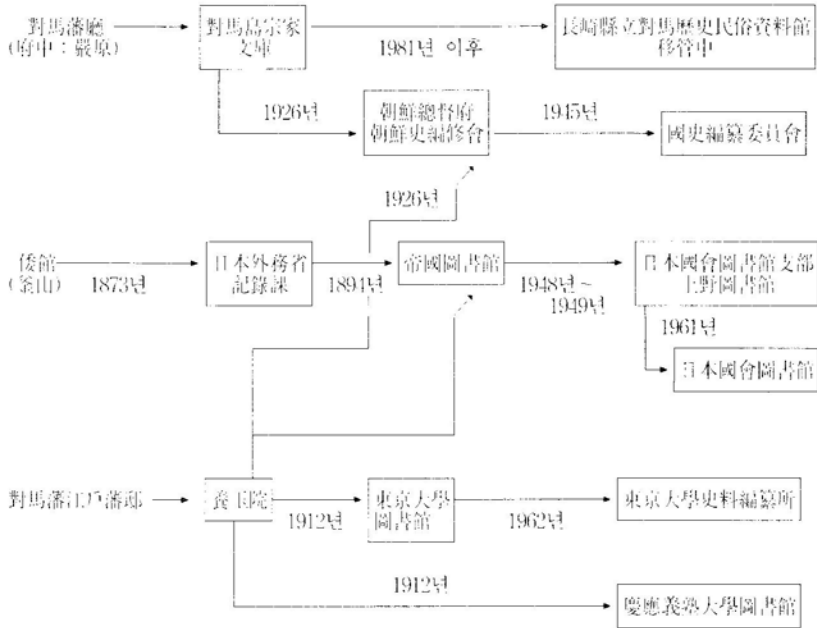
둘째, 대마도의 관련 유적·유물 및 문헌 자료의 소재지를 우선 파악²⁴⁾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자료들은 구입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연차적인 연구비 조달문제, 그리고 현재의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이므로 후쿠오카를 경유해야 하는 것²⁵⁾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의 문제도, 연구에 있어서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4) 표 2를 참조할 것.

25) 표 3를 참조할 것.

표 2. 對馬島宗家記錄 所藏現況



* 朝鮮後期 通信使와 韓·日交流史料展 《對馬島宗家資料》, 1991년. 한국사학회에서 인용

표 3. 교통편과 거리

		편수 및 거리		비 고
비행기	釜 山 → 福 岡	1일		
	福 岡 → 對 馬	1일 7번 왕복(35분)		
	長 崎 → 對 馬	1일 2번 왕복(45분)		
배	釜 山 → 福 岡	1주 3회(화·목·일, 부산출발)		웨 리
	釜 山 → 比 田 勝	부정기(1시간 30분)		제트 비틀
	小 倉 → 比 田 勝	1일 1번 왕복(5시간 50분)		
	博 多 → 嚴 原	1일 2번 왕복(직행 4시간)		웨 리
	博 多 → 嚴 原	1일 1번 왕복(직행 1시간 40분)		제트 비틀
자동차	上對馬町 → 上 縣 町	10km(15분)		對馬島內
	上 縣 町 → 峰 町	34km(50분)		
	峰 町 → 豐 玉 町	11km(15분)		
	豐 玉 町 → 美津島町	24km(40분) * 對馬空港		
	美津島町 → 嚴 原 町	13km(20분)		